

# 박원순 “文 대세론 작동하면 野 승리 보장못해”

(재인)

### 주말 광주 방문 ... 손학규도 “文 대통령 되려는 것 말 안돼” 천정배 “차별없는 세상 만들자” ... 남경필은 담양서 與 비판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호남을 찾는 대선 잠룡들의 발길이 분주해지고 있다. 호남 민심의 선배 유동성이 큰 대선 구도를 뒤 흔들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도전 후보 가운데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17일 광주를 찾아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가시 돌진 발언을 쏟아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대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동적 경선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승리할 수 없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아슬아슬한 경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 “대세론을 작동하면 후보의 확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며 “(민주당 내에서)혁신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총선 결과는 누가 봐도 민주당에 대해 거둔나라는 호남의 응징이자 경고”라며 “호남에서 후보들의 지지가 흔들리는 상황인 것도 이 때문이며 정치가 해결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제3지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도 않았지만 야권의 단합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한다”며 “그 방법이 무엇이든 통합적 관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지대에 대선 준비하고 있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광주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 “오는 22일 국민주권 개혁회의 광주본부 보고대회가 열린다”

며 “특권·기득권 체제를 바꿔서 개혁 체제로 나가자. 이것이 제7공화국 헌법 체제다. 그것을 위해 개혁 회의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탄핵 가결 전 시간이 있었는데도 황 대행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세상만들기에 광주시민이 앞장서고 국민의당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지사는 담양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새누리당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비판했다.

남 지사는 “새누리당 의원이 최순실 측근과 짜고 국정조사 질의를 사전에 조율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새누리당은 공중분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이어 “대통령은 탄핵 국면에서 법적으로 살아나려고 머리를 쓰고,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모른다”고 날을 세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대회에 참석해 “36년 전 5·18 때는 광주 민주화운동이 광주 밖으로 넘어가지 못했다. 이번에 촛불 집회로 전국이 광주화됐다”고 밝혔다.

전 전 대표는 “광주가 꿈꿔온 누구나 사랑받게 살 수 있는 세상, 사람·지역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세상만들기에 광주시민이 앞장서고 국민의당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지사는 담양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새누리당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비판했다.

남 지사는 “새누리당 의원이 최순실 측근과 짜고 국정조사 질의를 사전에 조율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새누리당은 공중분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이어 “대통령은 탄핵 국면에서 법적으로 살아나려고 머리를 쓰고,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모른다”고 날을 세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뉴스&정보 브리핑

###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민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신축 건물의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은 ‘모든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으로 확대했다.

병원과 학교,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주요시설 역시 면적에 상관없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 대학 등록금 올보다 1.5% 이상 못 올린다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1.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지난 16일 교육부가 공표한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따르면 내년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은 올해보다 0.2% 포인트 낮은 1.5% 이하다.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2년 5.0%에서 2013년 4.7%, 2014년 3.8%, 2015년 2.4%, 지난해 1.7%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 장애인고용의무 위반 1인당 월 135만원 내야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월 135만2230원을 내야 한다. 이는 올 해보다 9만1960원(7.3%) 오른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지난 15일 행정 예고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장애인 고용을 사업주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다. 내년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2%, 민간기업 2.9%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 시장이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제8차 시국촛불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제8차 시국촛불집회에 참석해 촛불을 들고 있다.

## “국립 5·18묘지에 묻히고 싶어”

### 권노갑, 7차 5·18 보상 신청

“광주에 묻히고 싶습니다.”

영원한 DJ(故 김대중 대통령)맨이자 동교동계 최장년 권노갑(86·사진)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전 민주당 상임고문)은 팔순을 훌쩍 넘긴 노정객인 권 이사장은 지난 15일 광주시청에서 생애 마지막 필기도 모를 제7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을 한 뒤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자신을 따르거나 정치적 행보를 함께 해왔던 이훈평(73), 김태라(73) 전 국회의원, 유호근(76) 전 김대중 대통령 공보비



서 등과 함께 관련자 심사를 받았다.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숨겨져 나 다치거나 구금, 연행된 피해자를 위한 보상은 8721명이 신청해 5517명이 관련성을 인정받아 보상을 받았다.

권 이사장은 “이제 생을 정리해야 할 나이에 군부독재에 맞서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의 곁에 묻히고 싶습니다. 신청을 해야 5·18묘지에 묻힐 수 있다고 해서...”며 입을 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그동안 권 이사장이 신청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남다른다. 그는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이 조용히 나를 부르더니 ‘자네하고 나는 5·18 관련해서 보상 신청을 하지 마세라’는 말을 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권 이사장은 “대통령이 ‘신청을 하지 말자’고 말한 이유는 5·18이 정권 교체를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보상의 의미가 필요 이상으로 강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 같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국립 5·18묘지에 묻기 위해서는 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번에 광주를 찾게 됐다

고 말했다. 그는 또 “내가 5·18 부상자는 아니지만 5·18 당시 광주의 일을 미국 대사관이나 일본 대사관 등을 통해 외부에 알린 활동도 평가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숲속의 전남 만들기

#### 장성군 대상 수상

올해 장성군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숲을 가장 잘 조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남도는 18일 “‘숲속의 전남 협의회’ 주관으로 2016년 ‘숲 속의 전남’ 만들기를 평가한 결과 장성군이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최우수상에 여수시, 우수상에 보성군과 순천시, 각급 선정됐다.

장성군은 ‘엘로우 시티 장성’을 추진하면서 황룡강과 장성을 중심의 생활권 주변에 40여만 그루의 노란 수목을 심고 ‘편백 힐링 특구 지정’을 통해 편백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을 전남지역 농작물재해보험

### 8만2541ha 가입 전국 최다

#### 전국 가입면적의 33% 차지

#### 가뭄·벼수발아 168억 지급

벼 농작물재해보험이 가뭄과 수발아 등 피해를 입은 가입 농가들의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올해 가입 면적이 전국 최다를 기록한 바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전남지역 가입 면적은 총 8만 2541ha로 도내 4만2147ha에서 가입했다.

이는 전국 가입 면적(24만700ha)의 33%로, 지난해보다 49%가 늘었다.

이처럼 가입이 증가하는 것은 지난 2001년 사과, 배를 시작으로 보험제도 도입 이후 필요성에 대한 농가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전남도가 자연재해로부터 농

가 소득 안정을 위해 제3회 추경에 도비 1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농가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 가입을 독려한 것도 한몫 했다.

지난 8~9월 가뭄과 벼 수발아 등 피해를 입은 6703농가에 보험금 168억원으로, 농가당 평균 250만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벼 수발아 피해로 지급한 보험금은 3763농가에 104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62%를 차지했다. 농가당 평균 276만원이 받은 셈이다.

고흥군 도덕면에서 벼 2.6ha(7800평)에 수발아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우 자기 부담(20%) 보험료 27만원을 내고, 48배인 1298만원을 받았다.

2017년 농작물재해보험은 기존 품목에 무화과, 유자 등이 신규 추가돼 총 53개 품목을 대상으로 2월부터 농협에서 판매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고려수지침을 연구하시면 평생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정통 서금요법·고려수지침 강좌

정통 수지침은 고려수지침으로 1975년에 유태우 박사가 처음으로 개발 창시하였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고려수지침은 현재 10개 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서금요법이란 수지침 외의 서암뜸, 기마크롬, 서암은열뜸기, 아류뜸, 금봉 등을 말합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한의약이 아니고 한국의 새로운 의학입니다. (고려수지침 강좌는 영,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페르시아어, 히브리어, 중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자신과 가정, 단체의 평생 건강관리에 필요하고 질병을 속히 낫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부작용, 후유증, 위험이 없습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자원봉사에 좋으며 외국 이민, 귀농, 농어촌 생활에도 꼭 필요합니다.

우측의 책자를 구입하시면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여 배울 수 있고, 월간 서금요법을 발송해 드립니다.

특가 48,000원

유태우 원저 / 4×6배판 / 508면 / 정가 60,000원

유태우 원저 / 4×6배판 / 367면 / 정가 53,000원

(주)고려수지침 ■문의처 : (02)2231-3000 ■통신구입처 : (02)2233-0841~2 ■인터넷 쇼핑몰 www.seokeyumshop.com (고려수지침학회중앙회를 검색하세요.)

■광주지회 062)224-5343 ■전남지회 062)525-0001 ■광주동부지회 062)227-3407 ■광주북부지회 062)512-2170 ■광주남부지회 062)673-8492 ■광주광산지회 062)956-2237

※타 지방에서는 전국의 180여 지회를 이용 바랍니다.

## 2017년도 전기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비지원 FTA/국제무역전공 석·박사과정 모집

조선대학교 대학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FTA전문인력 양성기관입니다. (호남연조선대학교) / 수도권서울대학교, 상원대학교, 인하대학교

지원자 우대 및 합격자 특전

- 광주·전남 산업체 근무자 및 관련 공공기관 재직자 우대
- 합격자 전원 재학기간(4학기) 동안 협약기관특별장학금 (수업료의 1/2)과 각종 학술장려금 지원
- 전일제 연구생은 수업료의 2/3 지원
- FTA 및 무역전문가 팀티칭 수업 실시, 국제학술대회 및 해외 현장실습 기회 부여
-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국제무역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 국내·외 기관 및 업체에 대한 인턴십 기회제공 및 취업알선

구분	일정	비고
이메일 사전접수	2016. 12. 1(목) 10:00 ~ 12. 23(금) 17:00	· lta.business@daum.net 으로 지원자 연락처(성명, 소속, 연락처) 송부
인터넷 원서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개)	2016. 12. 27(화) 10:00 ~ 2017. 1. 9(일) 17:00	·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함 · 진학사아플라이 http://www.jinhak.com/ (콜센터 1544-7715)
입학지원서(세출액) 및 서류제출	2016. 12. 27(화) 10:00 ~ 2017. 1. 10(화) 17:00	· 인터넷 접수 후 아래의 주소로 송부 또는 방문 접수 (우)61452 광주광역시 동구 밀문대로 309(서석동) 조선대학교 대학원 교학팀

※ 구술시험(면접),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일정은 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지

모집요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및 FTA비즈니스학과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 FTA비즈니스학과 062)230-7283 대학원 062)230-6401

조선대학교 대학원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